

**전일동향**

전일대비 1.20원 상승한 1,388.7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전일대비 1.20원 상승한 1,388.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상승한 1,391.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개장 초반 1,392원을 고점으로 반기말 네고 물량을 소화하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무거운 흐름을 보이며 1,390원 아래에서 횡보했고 장 후반 레벨을 낮추며 1,388.7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3.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68.8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91.50	1392.10	1388.50	1388.70	1390.10
엔화	868.58	871.62	863.13	863.44	-	
유로화	1486.25	1490.77	1480.91	1483.0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5	-5.32	-13.29
결제환율(수입)	-0.11	-4.42	-11.52	-25.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에...1,39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8.70) 대비 5.60원 상승한 1,391.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엔화, 유로화 등 주요통화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엔화는 일본 외환당국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지속되며 198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장 개장 직전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 돌파에 성공했다. 유로화는 ECB 인사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달러인덱스는 두 달 만에 106대로 상승하며 전장 서울 환시 마감 무렵 대비(105.7) 0.31% 상승했다. 여기에 위안화 또한 크리티컬 레벨인 7.3을 상향 돌파하며 아시아 통화 하락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금일 환율은 달러 초강세 흐름과 엔, 위안 동반 약세에 연동되어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 미세조정과 반기말 네고 물량 등은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87.67 ~ 1397.33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334.9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60원 ↑
	■ 美 다우지수 : 39127.8, +15.64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4.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3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